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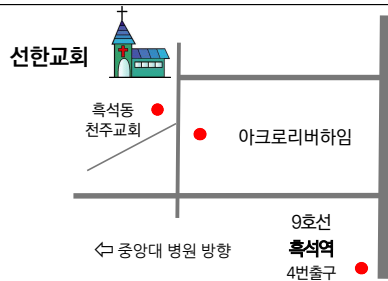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1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5장
교 독 문		교독문 22 (시편 37편)
찬 양 과 경 배		502장 (통일찬송가 259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13 ~ 16절
설 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전 9: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바울의 선교비전 (롬15:14-3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떡제공	김요한 임주형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가정을 반석위에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가정을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	---

가정예배	낙심으로 눈먼 자
찬송 : ‘내 맘이 낙심되며’ 300장(통 406)	
본문 : 누가복음 24장 13~33절	
말씀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많은 이가 낙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힘을 다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이들은 결국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던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15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낙심 때문에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인가.’ 밀려오는 절망감이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끝내 내 뜻대로 인생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기를 늦추시거나 십자가와 같은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의심과 낙망, 상실과 좌절로 믿음의 눈이 가리어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눈이 언제 회복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서서히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30~31절) 차갑게 식어있던 그들의 열정도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32절)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혹시 낙심으로 가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영적 시각이 열리는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눈이 다시 밝아지기를,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6)
서론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본론	1. 세상의 소금이라(13절) (1) 소금은 흔하지만 소중한 것이다. (2) 소금은 자신을 용해해서 맛을 낸다. (3)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4)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져 밟힐 뿐이다. 2. 세상의 빛이라(14절) (1) 숨겨지지 않게 한다. (2) 모든 사람에게 비추준다(15절). (3) ‘너희 착한 행실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6절) 3. 교훈 (1)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는가? (2) 나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3)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모세의 최후	날짜 : 6월 22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신명기 34:1-12		
	모세는 최후의 유언적 축복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온 땅을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참조, 창12:1-3).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날 일을 다했으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생을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죽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어떤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신명기의 기자는 모세에 대해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던 자였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셨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찬양과 기도	예수 따라가며 (새 449/통 377)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서 디마스 장로님에게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명문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설교 말씀과 QT를 통해 얻고, 다음 다섯 가지 수칙을 평생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주일 성수, 십일조, QT로 시작하는 아침,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 디마스 장로님의 사업은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는 평생 7억 달러라는 당시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결심대로 이를 아낌없이 선교 단체와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제 행동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말씀 나누기	사편 128:1~6	
묵상포인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확대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은총과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사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다고 하나요? 그가 누리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1~4절)	
적용하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은 은혜의 결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순수한 마음	날짜 : 6월 26일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시편 130:1-131:3		
	시인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데'는 깊은 수렁이나 깊은 등의 표현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은 인류의 죄악 지향적인 본성을 들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으며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없이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사역과 치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으며 눈이 높지 않았습니 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며 그의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아 도취에 빠져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무모한 일을 전혀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려 했습니다. 권세자의 자리에 앉았으되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통치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1. 나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	날짜 : 6월 23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시편 127:1-5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공격하려고 시도한 바벨탑의 건축이나 저주 아래에서 여러고를 건설하려 했던 히엘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뜻에 맞추어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고 찰지라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사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에 아무리 완벽을 기하여 노력해도 완전치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과학 문명 앞에 무릎을 꿇고 신봉하고 있는데 지나친 과학의 발달은 핵전쟁의 위협과 자아의 소외 등을 경험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낳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도는 참된 진리시며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모든 가정을 가리키며 성은 직접적으로는 성읍을 가리키나 동시에 성내의 모든 통치 질서, 인간 관계 등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질은 가정과 사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험난한 역사를 통하여 배운 값비싼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사모해야 할 은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셨음을 경험한 기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날짜 : 6월 24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시편 128:1-6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수없이 언급되는 삶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된 삶이 보장됩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하였으며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때로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불러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이 복의 원천임을 확신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현숙합니다.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정숙하고 성실하여 집안 일을 잘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녀를 생산하고 잘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조한 지방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연하고 약해서 다른 곳에 의지해야만 하는데 시인은 이를 아내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최후	날짜 : 6월 25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시편 129:1-8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쉴 만한 때가 없었으며 다윗 시대에 잠깐 부흥하는 듯했으나 다시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애굽, 모압, 암몬, 가나안, 블레셋, 앗수르, 바벨론 등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한 침입과 압제를 받아 온 역사적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의 침입을 상징하는 바, 그들의 공격이 세상 끝 날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그 배후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도 이러한 암흑 세력의 도전과 압박을 깊이 인식하여 영적 무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앗수르나 바벨론 압제에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 명맥을 이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의 섭리였습니다. 숭한 압박과 핍박하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으니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발 가는 자가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매우 강만 비유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난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듯한 고통스런 대접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채찍과 같았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채찍을 드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원수들에 의해 압박을 받으나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며, 때가 되면 원수들이 자신들의 비행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수하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